

광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

확진자 4일 새 12명 ... 장소 사찰에서 오피스텔 등 다양
깜깜이 감염 사례 잇따라 '조용한 확산' 시작 우려도 커져

광주에서 우려했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광주 34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추가된 4일새 12명(30일 오후 4시 기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 추정장소도 사찰에서부터 병원, 오피스텔 등 다양하고, 감염자 거주지도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광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확진자는 증상발현 이후에도 일상 생활을 이어온데다 감염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감염'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이미 지역내에서 '조용한 확산'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을 대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방역시기로 보고 동선 파악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확진자가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선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광주 34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추가된 광주 45번 확진자(70대 여성·북구 중흥동) 등 총 12명(34~45번) 중 11명(해의 확진자 1명 제외)의 진술과 CCTV·신용카드·휴대전화 GPS 조사 등을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도 지난 29일 광주로 파견돼 경찰과 함께 전방위적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들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일부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로 파악 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점인 목포 확진자 부부(전남 21·22번)와 가족 관계인 34번을 중심으로 감염경로를 추적했으나, 34번과 접촉한 광복사 승려(광주 36번)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자 광복사를 새로운 감염원으로 추가했다. 현재까지 광복사 승려인 36번과 접촉한 사람은 총 87명으로, 이 중 7명(광주 4명·타지역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43·44번이 광복사와 관련성이 없고, 다단계 사무실로 알려진 광주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피스텔도 감염원 추정장소로 포함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무증상자인 43·44번이 지난 25일 이 오피스텔에서 광주 37번 확진자와 접촉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37번 확진자는 지인인 광주 34번 확진자와 지난 24일 광주 동구의 한 한방병원을 찾은 인물이다.

방역당국은 일단 오피스텔의 운영 성격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114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투입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또 광주 44번 확진자가 지난 28일 목포에서 열린 '코인 설명회'에도 참석했음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설

명회에는 목포 33명, 광주 14명, 타지역 25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광복사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첫 감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초기 방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북구 푸른꿈 작은 도서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42번 확진자는 아직까지도 다른 확진자와의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확진자 중 일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브리핑을 열고 "일부 확진자는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겠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020년 7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광주일보사와 최진석(사단법인 새말 새말지 이사장)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7월의 책으로 스페인 작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선정했습니다.

<관련기사 16면>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돈키호테'는 지난 2002년 노벨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작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힌 책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닿지 않는 별을 잡으려는 자 그가 진짜 인간이고 세상의 주인이다"

"진짜 인간은 한 곳에 멈춰 머무르지 않고 아무 소득도 없이 보이는데도 애써 어디론가 떠나 건너간다. 건너갈 그곳은 익숙한 문법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아서 무섭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모한 도전과 모험이 등장한다. 대답하는 습관을 벗고, 질문하기 시작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닿지 않는 별을 잡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진짜 인간이다. 진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돈키호테를 배워야 할 때이다."

光州日報社

뉴스초점 - 21대 국회 한 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원-팀' 안 돼 상임위 배정 조정 부재 5·18 관련법 등 법안발의 기대 이상

지난달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딱 한 달만이다. 제1야당의 반발 속에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바로 가동됐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세력 및 세대교체가 이뤄진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워밍업' 기간이었기는 하지만 광주·전남 정치권은 기대만큼 원-팀으로 뭉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송갑석 시장위원장의 만찬 제의를 한 번 모이기는 했지만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참여하면서 구체적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남 국회의원들의 절반인 5명이 국회 농림

축산식품위에 배정되면서 소통 부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시도당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미묘한 균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차기 광주시장 구도와 맞물리면서 상호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전남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대결 양상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하는 것이 어떨까는 말과 함께 공심위원장을 현역 의원으로 따로 두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선 의원이 단 한 명(이계호 의원)에 불과하고 17명이 모두 초·재선인 상황에서 소통과 결집을 통해 정치력을 높이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는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확정됐으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등 5·18 관련 법안들도 광주 의원들이 차례로 발의에 나선 상황이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화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EU 화상 정상회담 EU 한반도 평화 지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EU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양측은 회담 직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EU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담에서 EU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AVER 남도장터 를 검색해보세요!
www.jnmall.kr

남다른 남도장터

봄맞이 특기 기획전

코로나19 수산업체 돕기

매일의 세계

덧글 이벤트

제2차화생상정 농산물푸러미지원

남다른 남도밥상

남도의 맑은 하늘, 기름진 땅, 청정바다 그리고 생산자의 정성이 만들어낸 남다른 산해진미를 전라남도 지사의 마음으로 산지 직송해 드립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만날 수 있는 대표쇼핑몰입니다.

맛있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남도장터를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